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오후(4부)	5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4부(오후)	5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1년 8월 1일 (제1108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럼

위로할 때가 아니다

“나에게 맞을래? 예수님께 맞을래?”
나는 제자들이나 직분자들이 잘못했을 때 호되게 야단을 친다. 더러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고통이 살이 안 되는 법, 굶은 건 아파도 짜내야 한다.
의사는 위로자가 아니라 치료자다. 고통스럽더라도 썩은 것을 도려내고 잘라내서 환자를 살리는 것이 진정한 의사다. 그런데 의사가 어설프게 환자나 위로하고 있다면, 썩은 부분에 거즈나 덮어주고 있다면 어찌 될까?
나 역시 위로자가 아닌 치료자다. 나는 신설된 주일 4부 예배에서 설교할 때 발음이 불분명했던 목사를 지적하고 야단쳤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발음이 부정확하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겠나. 그런데 누군가는 그 목사에게 ‘괜찮다’, ‘나는 알아들었다’라고 위로했다. 나는 그도 야단쳤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 목사를 죽이는 거라고 정확히 짚어줬다.
아픈 부분을 꼭 눌러 짜내는 것을 보면 매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인간미가 없어 보일 수 있다. 나도 3자라면 그럴 수 있다. 굳이 인심 잃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기른 내 제자가, 해산의 수고로 낳은 내 자식 같은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썩고 있는 데 가만 보고만 있다면 나는 스승도, 아비도 아니다.
충고나 훈계는 듣는 사람만큼 하는 사람도 힘들고 어렵다. 뻔히 상대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기에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계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 제자니까, 내 성도니까.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을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와 있지 않은가.
목회 초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설교하는 나에게 ‘목사님, 강패요? 왜 강패처럼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설교를 하세요?’라고 따끔하게 충고해주었던 박용선 장로님처럼 잘못된 것은 지적해줘야 한다. 그 후로 나는 주머니를 껴매버렸다.
지구를 떠나야 지구가 보이는 법. 나 아닌 3자가 나를 제대로 본다. 그러므로 남의 훈계나 충언이 아파더라도 귀 기울이자.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조치가 발표되고 2주가 지났지만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자 다시 2주가 연장되었다. 전염성이 강한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어가는 추세라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때이다. 속히 집단면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할 뿐 아니라 거리두기 원칙도 잘 준수하여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오늘의 성과를 계승 발전

부응하여 편집지시가 내려진 예배영상 원본들을 찾아 시간 조정을 하고 다시 자막을 입히고, 그렇게 준비된 예배영상들 가운데 목사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며 합당한 예배영상을 결정해주시면 비로소 예배방송 준비에 들어간다. 이렇듯 예배시간에 임박하기까지 목사님께서서는 최선을 다하신다. 모두가 멈춘 상태에서 이렇게 일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이처럼 매사 지극히 작은 일조차 최선을 다하시는 목사님

동안에야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없는 일일 수 있으나 남의 것에 충성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다. 비행기내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앞사람이 사용한 흔적들을 그대로 두고 내 볼일만 보고 나온다고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말끔히 정리하고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이 취해야 할 생활자세를 강조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매사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충성을 다하는 자세를 조직화하면 만

습관이 운명을 좌우한다 나쁜 습관을 찍어내라

봉우 이초석 목사

습관이 생각보다 빠르다

시켜야 한다.
이러한 정부 시책에 따라 비대면예배도 2주간 더 연장되어 진행되고 있다. 더러는 생방송으로 해달라는 요청도 있는 줄 안다. 그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실상 이런 상황에서 가장 번민하며 애통해하는 분은 목사님이다. 목사님은 전 세계 72개국의 성도들을 이끌고 시마다 때마다 영적 꼴을 먹여야 하는 사명을 가지신 분이다. 따라서 비대면예배를 진행해야 하는 시기에 어떻게 하면 이들을 영적 충만으로 인도할까 노심초사하는 분도 목사님이다. 그래서 눈이 짓무를 정도로 예배영상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새로 편집을 지시하고, 그러는 중에도 성령의 인도함 따라 더 합당한 설교를 찾느라 애쓰고 번민하신다. 오죽하면 직접 설교하는 게 낫다고 토로하실까.
예배 방송을 준비하는 스태프는 그 뜻에

의 정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은 목사님의 삶 자체를 응축하고 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눅16:10~12). 사실 더 큰 비밀은 10절 뒤, 11절, 12절 말씀에 있다. 목사님은 그래서 언제, 어디를 가나이 원칙과 철학을 지키시려 애쓰신다. 하다못해 해외에 나가 호텔 숙소를 이용할 때조차 전기, 수도 및 자잘한 용품까지 아껴 쓰라 말씀하시고 몸소 실천하신다. 방을 나올 때 불을 끄고, 침대를 정리하고 나오라는 것이다. 어차피 체크아웃할 때 호텔비용으로 지불될 것이기 때문에 그

물과 만인이 나를 돕게 된다는 말씀이다. 항상 예배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목사님의 카톡이 올린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예배를 수종하는 모든 직원 및 봉사자들에게 전달한다.
목사님의 목회경영을 보며 교회 지도자들 뿐 아니라 모든 조직의 지도자들이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조직구성원들 머릿속에 리더의 철학이 깊이 각인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강조, 또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에겐 “명작, 최선, 사명” 이 세 단어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기까지 목사님이 얼마나 강조하고 반복하셨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목사님 스스로 당신의 정신 속에 반복하고 반복해서 조직화한 결과이다. 그날에 받을 상을 바라며 오늘도 매사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16:10)

습관이 네 운명을 낳는다

습관은 말합니다. “나는 너를 성공자로 만들 수도 있고, 실패자로 만들 수도 있으며, 나는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피폐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또 나는 너를 의인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죄인이 되게 할 수도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 가는 법, 습관이 습성을 낳고, 습성이 운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더욱이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들이 각 분야에서 세계 제일 가는 인물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 세대만은 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세대는 비록 희생과 고생의 세월을 살았지만, 내 자식들만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젊은 세대에게 거는 기대가 큼니다. 막연히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키울 수 있는 능력과 경험과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식만 알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공식은 이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16:10).

이 말씀을 붙잡은 농사꾼의 아들 이초석이 세계적인 전도자 이초석이 되었고 오늘날의 예수중심교단을 일궈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 말씀이 뭐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소한 것, 우습게 여기는 지극히 작은 것이 인생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당연하지요, 시냇물이 강이 되고 강이 모여 바다가 되는 것이니까요.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습게 여기는 작은 돌부리에 걸려 코가 깨지고 무릎이 깨지고, 심하게는 뇌진탕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곧 나쁜 작은 습관으로 인해 인생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좋은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의 동아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젊음은 나이가 아니다 젊음은 정신이다

예전에 방문했던 100년 역사를 가진 일본 최고의 음식점 가운데 하나인 행락원 사장에게 ‘이곳은 무엇을 제일 잘하느냐?’고 질문하자 그는 ‘웃음을 잃은 자는 잘라내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행락원에서 나를 열심히 일하다 해고당한 사람이 “나는 왜 잘린 거야?”라고 하다가 그것이 웃지 않는 것 때문이란 걸 알았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웃음, 이것은 사회가 요구하는 최고의 스펙입니다. 많은 자들이 스펙을 쌓으려고

유학과 해외연수도 다니고, 지식 함양에 매진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표정관리 따위는 대수롭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인상이 10년, 아니 성패를 가른다면 웃음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스펙이 아닐까요? 그래서 페이스팩(face+spec.)이란 말이 나온 것 아닐까요?

자동차 세일즈로 명성을 얻은 어느 세일즈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넌 참 잘 웃는구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가볍게 여겼던 그것이 영업을 하면서 큰 장점이 될 줄은 그도 몰랐대네요. 영업은 고객의 마음을 사는 것이 중요하네, ‘고객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총회장 이초석 목사

바로 웃음’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웃음이 최고의 무기예요 전략이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보고 미소를 지어보세요. 실제로 꼭짓점 인생이 된 자들은 표정 짓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목회 초에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연습을 하곤 했습니다. 자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올라갔던 눈꼬리가 내려오고 온화한 얼굴이 됩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습관의 다른 이름은 노력과 반복입니다. 자꾸 웃으려고 연습하고, 그것을 반복하면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둘째는 언어관리입니다. 언어는 인격의 척도입니다. 말이 상스럽거나 거칠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달리 보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반영하는 법, 물통 속에서는 물이 나오지만, 풍통 속에서는 풍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말이란 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른 법’ 아니니까. 같은 말이라도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이 있고, 기분 나쁜 말이 있습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 있고, 감동되는 말이 있다 이겁니다. 기업 간에도, 국가 간에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교류가 끊기고, 분쟁이 일며, 심지어 전쟁이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불전쟁이나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간의 전쟁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작은 불씨, 말 한마디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약3:5)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말을 잘못했다가 낭패를 보고, 그동안 쌓아놓은 좋은 이미지를 일순간 실추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말을 하려면 다섯 번 생각할 것 열 번 생각해 보고 뱉어야 합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쏘고 물과 같아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말에도 3대 원칙이란 게 있습니다. 남이 말하는 데 앞지르지 않기, 남의 말을 자르지 않기, 남이 말하는데 끼어들지 않기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법, 열린 수도꼭지처럼 아무 말이나 마구 뱉어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니다. 그게 잘 안 되거든 예전의 저처럼 습관이 될 때까지 자갈이라도 물고 다니세요.

다음은 행동관리입니다. 5분 늦는 습관, 순간 모면하려는 거짓말...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인생을 추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면접자들에게 급히 면접장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장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이었습다. 면접자들은 급한 마음에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 면접장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심사는 면접이 아니라 벗어놓은 신발로 결정되었습니다.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자들은 탈락, 급한 중에도 가지런히 신발을 벗어놓은 자들이 합격했습니다. 평소 작은 습관이 희비를 낳은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기업가들과 골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골프 실력이 저보다 우월했기에 저는 한 타, 한 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분이 그런 저를 유심히 본 모양입니다. 그는 저에게 “목사님, 존경합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매너가 중요하지요. 골프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매너가 다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퍼팅 끝났다고 저만치 가서 전화나 받고 담배나 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하고는 다시는 골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회에서도 매너가 썩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성할 수 없지요.”라고 했습니다.

큰 돌에 넘어지지 않는다 작은 돌부리를 조심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잠자리 정리하는 습관, 거짓말 안 하는 습관, 일 마무리 잘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남을 배려하는 습관... 이런 작은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매일 물뭇돌 던지는 것을 습관화하더니 그것으로 골리앗을 때려잡았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나쁜 습관이 있다면 고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몸에 밴 습관을 고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눈이 실족케 하거든 눈을 빼 버리는, 손이 실족케 하거든 손을 잘라 버리는 혁명적인 개혁의 정신이 있어야 나쁜 습관을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 인생의 암이요, 인생의 불량품이기 때문입니다. 잘 안 된다고요? 하루아침에 될 리가 없지요. 그러면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도 해보세요. 작심삼일도 반복하면 습관이 되는 날이 오니까요.

좋은 습관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나와 싸워 이겨 얻게 되는 승리의 산물입니다. 수신제가(修身齊家) 후에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입니다. 나를 이겨 다스려야 세상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도인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늘쳐서 죽였고, 저도 거울을 보며 “이초석 아! 너 왜 그랬니?” 하며 늘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최고의 습관인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하는 습관처럼 표정이나 언어, 행동관리를 습관화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영·혼·육에서 흠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자가 될 것이고, 신명기 28장의 복된 주 인공들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단련을 통한 성장

독수리는 가시나무 가지와 뾰족한 작은 돌로 동지의 틀과 기초를 만듭니다. 그 위에 보드라운 깃털을 올려놓아 동지를 완성한 후 알을 낳고 품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알이 부화되어 새끼가 점점 커지면 깃털을 제거해나갑니다. 어느 정도 커진 독수리 새끼는 가시와 뾰족한 돌 때문에 더 이상 동지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동지를 탈출하여 스스로 날게 됩니다. 그래도 스스로 날지 않는 새끼 독수리에 대해서는 어미 독수리가 동지 밖으로 밀어내어 날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팔리게 하여 인생의 가장 밑바닥 생활부터 경험과 지혜를 쌓도록 하였고,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게 하신 후 유대인을 필두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갖가지 경험을 통해 단련시킨 후에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노예의 땅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끝없는 추격에 대한 대항과 광야에서의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장 축복받은 왕으로 기쁨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곳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의 삶과 거룩하지만 힘겨운 공생애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인간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또는 예기치 않은 갖가지 문제로 인해 어렵고 힘드시나요? 일시적 어려움은 분명 하나님의 큰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단련의 과정

정이고 축복의 모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단련만 시키지 않으십니다. 단련 뒤에는 크고 작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열매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큰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더 크게 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단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보장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 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4:12~13),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욥23:10).

Dr. 이관섭 장로

:: 세상을 보는 창 ::

행복과 기쁨의 차이

행복과 기쁨의 차이를 아는가? 행복과 기쁨이 함께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성경에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지만 ‘행복’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에 신기하고 흥미롭다. 왜냐하면 행복은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연봉이 오르고, 새집을 구입하고, 자동차를 사고.... 이럴 때 행복 지수는 치솟지만, 사업에 실패해서 집을 팔아야 하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그러면 행복은 사라져 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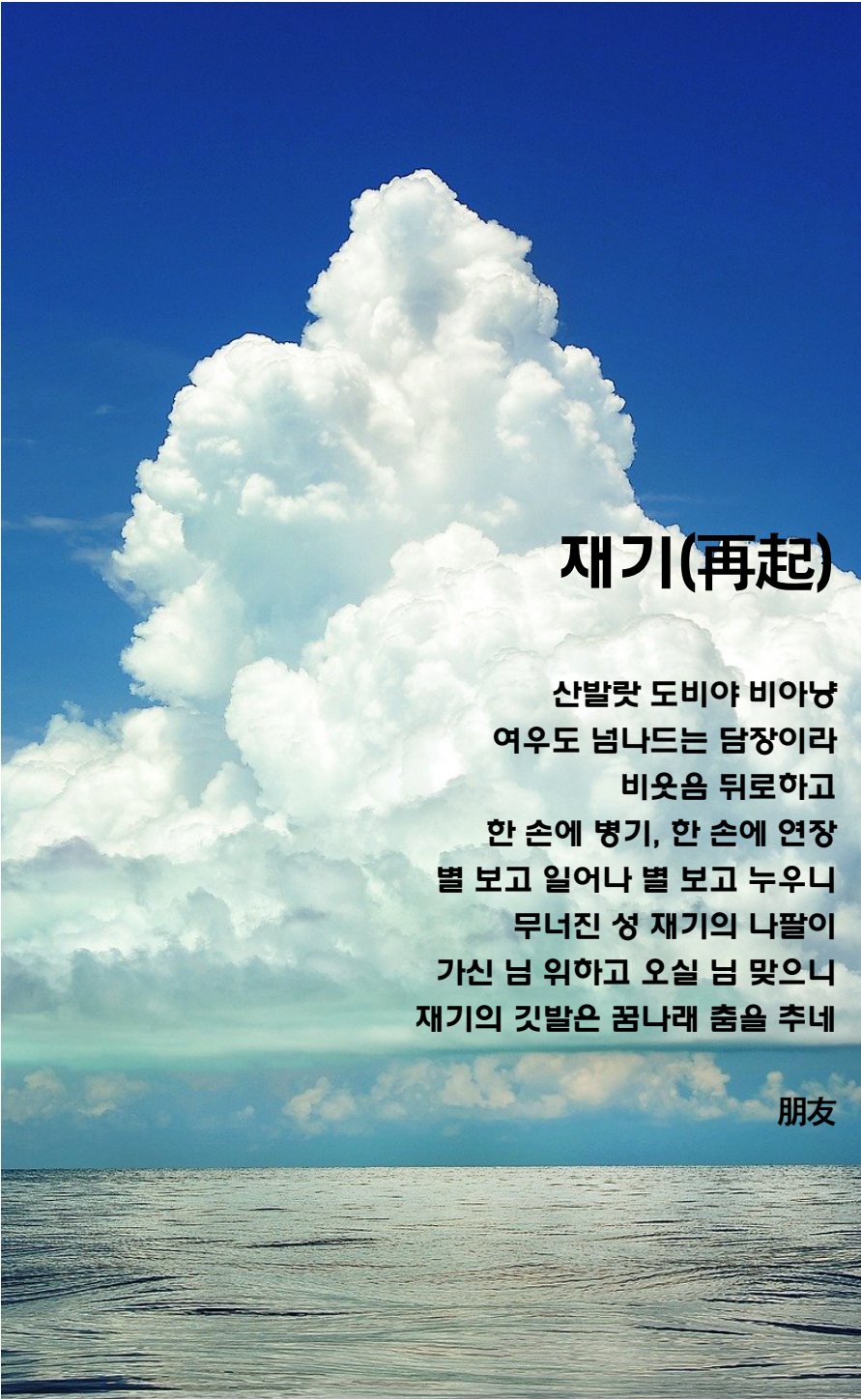
그런데 기쁨은 환경이 힘들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환경에 대해 반항한다. 기쁨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을 불렀다. 행복해서 찬송했을까? 아니다. 그러면 기뻐서 찬송했을까?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쁨은 세상 환경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주시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고통의 상황에서 기뻐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세 번 씩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나 하

나님은 거절하셨다. 그러나 바울이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네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며 거절하신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교만을 막기 위함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겻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No라고 응답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받은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다.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자기 앞에 놓여 있음을 알고 있었다. 절대 시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자기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힘든 상황에 빠져 행복하다고 말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기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기쁨은 우리가 사는 그 어떤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반항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고난을 예방하고 낙심을 예방하는 백신과 같기 때문이다.

이정금 전도사



재기(再起)

산발랏 도비아 비아냥
여우도 넘나드는 담장이라
비웃음 뒤로하고
한 손에 병기, 한 손에 연장
별 보고 일어나 별 보고 누우니
무너진 성 재기의 나팔이
가신 님 위하고 오실 님 맞으니
재기의 깃발은 꿈나래 춤을 추네

朋友

:: 생명의 말씀 ::

음모를 혐오하시는 하나님

한 성도가 코로나 백신주사 음모론을 접하고 그동안 접종을 미뤄왔는데, 때마침 마귀의 장난에 속지 말 것을 주장하신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에 확신을 얻고 주사를 맞았다고 한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야 하기도 하지만(롬14:1),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지도록 만드는 마귀의 역사도 분명히 있다. 코로나라는 위기의 토양에서,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두려움과 부정을 주입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졌다. 품지 말아야 할 생각 그 이상의 과도한 생각을 품어(롬 12:3), 부분적인 사실에다가 거짓을 교묘히 섞어가며 스스로도 속고 남도 속이게 만든다(딤후3:13). 이해 불가능한 보이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무엇인가와 부정적으로 추론하고 연결 지으려 한다는 면에서 음모론은 영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망령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고, 경건함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한다(딤후4:7).

성경에도 많은 음모론이 등장한다. 유대민족을 죽이려던 하만의 음모, 산발랏과 도비아의 성벽건축 훼방음모, 진

리를 막아서서 예수를 죽이려했던 바리새인들의 음모,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둔갑시킨 음모, 계시록의 7교회에 등장하는 음모론 등등! 그러나 하나님은 각종 악한 음모들을 결국에는 당신의 선한 뜻으로 바꾸신다. 악과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며, 하나님이 부재한 것이기에 중국엔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만다. 반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국가반역자로 취급받고 음모론자로 몰렸으나, 결국 그 선포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대로 성취되었기에 그것은 음모가 아니었음이 증명되었다. 불안을 조장하는 음모론들을 예방하고 치유할 핵심 자원은 바로, 성경 말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기 때문이다. 음모를 혐오하시고, 거짓을 말할 수 없으신 하나님(민 23:19),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딤후3:16).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 우리의 발을 견고한 반석위에 세우시고(시40:2), 중국엔 우리를 위해 선(善)을 성취하실(롬8:28) 하나님께만 삶의 토대를 두자!

송직화 목사

:: 믿음의 터를 다지며 ::

:: 빛이 되리라 ::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이익은 커녕 손해만 보는 어리석은 일, 또는 불가능하고 무모해 보이며 도저히 승산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개구리 두 마리가 우유 통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 개구리는 자신의 운명을 개탄하고 해엄쳐 볼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스스로 빠져 죽었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는 하나님께 구해주실 것을 굳게 믿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믿고 빌었습니다. 기도하던 중 ‘너는 빠져나올 수 있다! 계속 밟길 짓을 하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개구리는 어떻게든 우유 통에서 빠져나오려고 버둥대며 뒷발로 우유를 휘젓고 또 휘저었습니다. 마침내 우유가 치즈가 되면서 딱딱하게 굳자 개구리는 그것을 밟고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핑켓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방법을 찾습니다.

최근 저에게도 계란으로 바위를 깨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바이오 의약품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가 대표원장인 신우 신경재활의학과 줄기세포센터는 2021월 7월 8일, 식약처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줄기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줄기세포배양 및 줄기세포연구 등에 관하여 바이오시설과 연구인력, 줄기세포 배양기술력을 국가로부터 인증받은 것입니다. 첨단재생의료 법률에 의거, 본 신우 줄기세포센터는 허가일로부터 합법적으로 줄기세포를 배양할 수 있으며 본 줄기세포센터에서 배양한 줄기세포를 외부 첨단재생의료기관(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배양된 줄기세포를 이용한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와 치료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절박한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새로운 줄기세포 치료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재생의료법률과 제도의 미비로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많은 환자들이 해외(중국, 일본)로 나가야 했던 불합리성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에서 국가(식약처)가 허가한 줄기세포 처리시설 허가를 취득한 의료기관, 연구소에서만 합법적으로 줄기세포를 배양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우 줄기세포치료센터는 첨단재생의료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식약처로부터

터 줄기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았기에 경쟁력 있는 연구인력 및 시설과 차별화된 배양기술을 통해 합법적으로 배양된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루게릭병, 파킨슨, 알츠하이머 치매, 뇌졸중 및 희귀 난치질환 치료와 코로나 백신 등 첨단바이오 의약품 연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최첨단 줄기세포 재생의료를 통한 희귀 난치질환 치료와 연구는 서울대학병원, 가톨릭 서울성모병원, 차의과대학 차병원 등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이 아닌 작은 의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줄기세포센터가 식약처로부터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고 골리앗과 어린 소년 다윗의 싸움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애당초 되지 않는 일로 헛수고라고 모두 말렸습니다. 특히 이번 세포처리시설허가는 우리나라 SKY대학 중 Y대학교 세OO스병원과의 경쟁에서 한 곳이 허가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초일류 대학병원, 첨단의료센터와 명성도 없는 저희 의원급 줄기세포센터와의 싸움이었기에 처음부터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철저히 준비해야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패색이 짙어지고 저도 지치고 번아웃 상태에 이르러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그 순간 총회장 이초석 목사님께 전화드렸습니다. 그간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특유의 목소리 톤으로 “No!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네 생각이 부정적이면 하나님도 네 의지를 초월하여 도우실 수 없어! 꿈을 가져!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잖아!” 하시며 전화로 축복의 기도를 아주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초석 목사님께서 저희 병원까지 찾아오셔서 제 머리에 안수하시며 기도해주셨습니다. 안수받는 내 머리가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내 영혼과 마음으로부터 작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아라!” ‘아! 이번 도전한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확신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식약처는 이런저런 사항들을 지적하며 개선하고 보완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하도록 압박하였고 한가지가 끝나면 또 다른 보완사항을 끊임없이 요구하였습니다. 제풀에 지쳐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 기도와 성령의 뜨거운 응답을 받았지만 너무 지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다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이초석 목사님은 카톡 문자로 잠언을 보내시고 중간중간 전화로 확인하시며 ‘꿈을 버리지 마라!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다. 힘내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시며 기도해주셨습니다.

2021년 4월 8일 시작한 일이 2021년 7월이 시작되었는데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사환에게 명한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왕상18:43)”는 말씀을 붙잡고 버티고 있던 순간 정말 작은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식약처의 지적사항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보완내역을 계속 올리고 있던 중 Y대학교 세OO스 병원 첨단재생센터에서 포기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Y대학교 세OO스 병원 담당 직원 및 교수들도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Y대학교 세OO스 병원도 지적사항과 보완내역이 너무 많고 이런저런 규제에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판단하였습니다. Y대학교 세OO스 병원은 다음 기회에 다시 신청하기로 내부회의에서 결정하고 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이 있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제가 섬기는 신우 신경외과/재활의학과의원 줄기세포센터가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별을 따온 것입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내어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태복음 7:9~11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4)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한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여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하나님도 오래 참지 못하십니다. 나의 앞의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 힘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면 계란으로 바위를 깨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립니다. 줄기세포치료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며 예수님 이름을 높여드리며 복음전파와 선교의 수단으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포기의 순간과 눈물의 골짜기를 넘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질책과 격려와 쉬지 않고 기도해주신 이초석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포기하는 순간 핑켓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방법을 찾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며 해내는 일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우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메디스팀 줄기세포센터)
대표원장 안계훈

중요한 것,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되다.

중요한 것을 나중에 하는 습관을 들이면 결국 그 일을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비단 큰 프로젝트나 큰일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다. 매일 반복되는 나의 일상적인 일에도 분명 우선순위가 있고, 그 우선순위에 맞게 행동해야 결국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다.

하루 일 중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 묵상일 것이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집에서 자율적으로 내 신앙을 관리해야 한다면 이를 저녁이 아닌 오전이나 새벽에 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다. 저녁에는 또 무슨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당장 일과 후에 몸이 피곤하기만 해도 중요한 일을 포기하거나 뒤로 미루기 십상이다. 내 육체를 관리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침에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다른 일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해내게 된다. 그러나 저녁에 운동하게 되면 여러 변수에 노출되어 결국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성공자의 책을 보면 그들 대부분 아침 일찍 기도와 명상과 운동을 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이 아침잠이 없어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중요한 것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시간 관리이고, 결국 자기 관리이다.

목사님 말씀처럼 자기 관리를 잘해야 내 인생에 부도가 나지 않는다. 자기 관리의 표본 같은 우리 목사님을 수십 년 따라왔다면 ‘이젠 적어도 그분 닮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에게서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노력한다. 닦은꼴은 시간과 정비례하니까.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